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2월 24일(금)

..(음력 1월 28일)..

Пятница

24 февраля 2017 г.

№ 7(11672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3일은 러시아에서 조국 수호자의 날을 기념한다. 군사들의 행렬.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조국 수호자의 날 축하문

친애하는 여러분!

2월 23일은 우리나라에서 조국 수호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 기념일을 맞아 러시아 군대열에서 복무했던 분들과 복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방 강화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이날은 전체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 대한 애정과 봉사는 러시아 문화의 근본 사상이고 민족 정체성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힘이자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국가 역사 속에는 조국 수호자들의 용맹스러움과 영웅정신에 대한 본보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룬 공적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들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사할린주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노르촌의 출신의 니콜라이 다닐로위츠 그리셴코는 자신을 포위한 나치들을 향해 마지막 수류탄 가지고 자신을 던져 폭파시키고 1943년 가을에 전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포트르 이와노위츠 일리초브입니다. 그는 습수섬을 탈환할 때 적들 간이진지의 포문을 가슴으로 막아내어 동지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다른 우리 동향인들과 동포들도 그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영웅입니다. 이들에게 영광과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할린 및 쿠릴 젊은이들에게 이런 분들에 대해 항상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할린, 쿠릴 섬에서 군사적 애국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군병력 대열 속에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점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건강과 번영과 찬란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기원합니다.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

주정부 사할린 군인들에게 표창과 포상

지난 21일(화) 조국 수호자의 날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센터에서 68전투군단의 군인들, 국경수비대 대표, 특수 부대, 참전 용사, 주·시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식 명절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 동부 군관구 세르게이 수로위킨 사령관은 조국 수호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러시아 군사력의 높은 잠재력은 우리 나라 독립의 보장과 국제 안전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섬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작년 8월에는 육군 제68군단의 39 붉은 깃발 보병여단은 <2016군대> 경기의 일환으로 이뤄진 탱크 승무원 경기에서 우수 탱크 승무원 3위 안에 올랐다고 전했다.

환영사를 한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는 국내 안정과 세계 평화를 보호하고 국민의 가정과 친지들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들은 언제든지 위기의 순간에 도우려 할 것이라고 하고 참전용사들에게는 그들의 적잖은 수고로 사할린과 쿠릴은 주민 삶의 터전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육군관계자들은 사할린주정부와 주지사의 표창장과 감사장과 함께 포상을 받았다.

단신

네벨스크구역, 양어장 개장

이번 주에 네벨스크구역 프리도로즈카촌에서 연어 양어장이 개장되었다. 초기 기획된 어장량은 연간 3000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하는 것이다. 양어장은 주정부의 지원 아래 <카니프>유한회사가 건설했다. 양어장 개장식에 참가한 주정부 부수상 이고리 비스트로브는 연어 인공 생식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로웨츠키> 연어 양어장은 사할린주의 46번째 양어장이라고 전했다. 블라지미르 박 네벨스크 시장은 <로웨츠키>는 네벨스크 구역의 첫 개인 양어장임을 강조했다. 어장 측은 올 5월 말에 2천 백만 마리의 연어치어를 사할린의 강 지류에 방류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근골격계 장애인 선수들의 러시아 알파인 챔피언십 대회 개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근골격계 장애인 선수들의 러시아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2월 23일 조국 수호자의 날에는 트레이너들을 위한 특강과 전문시험이 있고 경기는 <고르너 위스두호> 스키장에서 24일 10시부터 시작한다.

대회 폐막식과 시상식은 28일 14시30분에 있을 것이라고 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 홍보실이 전했다.

2월26일 <마슬레니차> 펼쳐져

2월 20일(월)부터 러시아에서 마슬레니차(겨울을 전송하는 민속 명절) 주간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블린(러시아식 부침 또는 팬케이크)을 굽고 사할린 주내 각 도처에서는 마슬레니차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는데 박물관, 도서관과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기관들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슬레니차의 주요 행사는 마슬레니차 주간 마감인 26일(일)에 가가린휴식공원에서 열린다. 전통적인 많은 놀이와 즐거운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고 겨울과의 작별을 상징하는 마슬레니차의 썰인형에 점화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수산물 박람회 열려

지난 22일(수) 12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건물 근처에서 수산물 박람회가 열렸다. 이날 수산물 식품을 <안타르노예>, <웨스토즈니 베레그(동부 해변)>, <드루즈바>어로습호스를 비롯 섬지역의 17개의 기업이 소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저렴한 생선>지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날 시민들은 냉동생선, 염장 생선, 건어물, 해산물, 생선 통조림, 연어알 등 다양한 어류 품목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 외 박람회 현장에서는 7개의 급식 업체가 마련한 요리들이 판매되고 공연도 펼쳐졌다.

주한인여성회 회장으로 김웨철 씨 선출

지난 18일(토)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여성회 긴급 총회가 소집되어 본회 회장 선거를 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엄옥순 여성회장이 사퇴했다.

회의에서 15명의 유권자가 모인 가운데 다수가결로 신임 여성회장으로 김웨철(1949년생)씨가 선출되었다. 김웨철 씨는 장기간 동안 동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숫자로 그려본 사할린 남성

사할린통계국 홍보실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과 쿠릴지역에 남성 23만4000명(전 총주민 수에서 48%)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근로능력을 지닌 남성은 66%, 16세까지의 청소년은20%, 고령의 남성은 14%이다. 전체적으로 주내에서 남성 1000명에 여성 1081명의 (러시아연방에서는 1158명, 극동지역에서는 1082명) 비율이 나타났다.

주내 도시에서 여성들은 수적으로 우세하여 성별 비율은 남성 1000명에 여성은 1104명이다. 이와 같은 지표는 사할린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아니와, 마카로브, 세웨로쿠릴스크, 스미르니흐, 유즈노쿠릴스크 구역들에서 여성의 비율은 적게 나타났다. 쿠릴스크 구역 같은 경우에는 남성 1000명에 여성 486명의 비율을 보인다.

극동지역에서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우세한 곳은 추코트 지역으로 남성 1000명당 여성은 965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35-39세 연령층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거의 균등하고, 40세부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연령층에 따른 성별 차이는 더 확대되고 특히 도시에서는 더 크다. 이런 불균형의 원인은 남성의 지속적인 조기 사망율이 높은 데 기인한다.

사할린주의 근로능력이 있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세(전 러시아연방에서는 36,8세, 극동지역에서는 35,4세)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남성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66%이고 평균 남아 출생률은 51%다.

사할린주 각종 경제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52%가 남성이다. 이들 중 건축분야에서는 87% , 광산업,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는 77%, 동력 부문 (전기,가스 및 수도)에서 69%, 생산가공업체들에서 63%, 공무원으로는 57%가 남성이다.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평균 나이는 40세로 그 이상의 연령층을 포함하여 남성의 48%가 대학과 전문학교 출신들이다.

2016년 말 취업센터에 공식적으로 실업자 2000명이 등록돼 있었는데 그중 남성이 52%였다.

(사할린주통계국 자료들에서)

사할린 여성들은 든든한 남자를 좋아하고 그들을 위해 상을 차리고 선물도 준비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일부 여성들에게 두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남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수호자의 날을 어떻게 기념할 계획입니까?

에카제리나(40대 초반, 회계원):
남자에게 있어서는 지능, 자발적 능력, 유머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은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워낙 활동력이 넘쳐서 친구 집에 가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든가 하고 시 스포츠행사를 찾아가든가 또는 자연을 즐기러 시외로 나갈까 합니다.

릴리아(50대 초반, 기업인):
저는 남자가 여자를 존중해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여성에게 관심, 배려, 뒷받침도 생기는 것 같아요. 또한 남자로서 자신의 가족, 여자, 아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2월 23일 조국 수호자의 날에는 보통 맛있는 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가장인 남편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엘레나(40대 초반, 개인사업가):
물론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애정과 충실성, 배려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와 우리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이 저에게 배신을 안 할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남편이 엄청 즐기는 낚시를 하러 보낼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잡아온 물고기로 생선구이를 요리하여 멋진 상을 차리고 명절 기분을 펼칠 겁니다. 아니면 친구네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요.

타치아나(40대 초반, 회사원):
저는 믿음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남자들을 좋아해요.

명절에는 맛있는 요리를 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딸과 함께 노래도 불러 주고 춤도 출 겁니다.

리자웨타(13세, 학생):
남성 성격에서 뭘 특별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남자가 잘난 척하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빠와 오빠, 동생을 축하할 건데 어떤 선물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자기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선물이 필요없다는 게 아닌가요.

엘레나(40대 초반, 교사):
러시아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뜻의 단어가 아니면 모든 것이 남자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감한, 책임있는, 성실한, 믿음직한 같은 단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들의 성격

은 그의 태도나 행동 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 식구는 남자 셋인데 모두에게 줄 선물을 챙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물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다만, 한가지 선물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연극을 즐겁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연극 입장표를 구입해서 남자들을 극장에 보낼 생각입니다.

알리나(50대 후반, 주부):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명절에는 물론 우리 집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손수 과자를 만들 겁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할 거고요.

알렉산드라(30대, 회사원):
모든 면에서 지켜주는 남자, 든든한 남자, 믿음직한 남자, 책임감 있는 아빠, 사랑을 주는 남자가 좋습니다.

아들과 남편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보통 이날에는 친구 가족들과 어울려 보냅니다. 가족 각자가 요리 몇 가지를 준비해서 상이 무너지도록 한 상을 차립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여러 놀이도 합니다.

이번에 남성들 덕분에 4일을 휴식하니 친척들과 모이기도 하고,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즐길 생각이고, 낚시하러도 갈 생각입니다.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토탈 받아쓰기>준비 시작

2월 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섬> 체호브 책박물관에서 사할린주민들을 위한 <매주 금요일 러시아어>과정의 첫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다가올 <토탈 받아쓰기>전국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어 문법에 대한 수업 7시간이 계획되었고 수업은 박물관의 연구원이 진행한다. 받아쓰기 시행 후에는 각자 수업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알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밝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진다.

연례<토탈 받아쓰기>국제언어능력평가 행사가 올해는 4월 8일에 실시된다. 이미 사할린 주민들은 6번째 참가하고 있다. 매년 자발적 지원 형태로 이뤄지는 교육행사인 <토탈 받아쓰기>에 2016년에는 약 100명의 사할린주민들이 참가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러시아어 지식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언어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к «Тотальному диктанту»

Первое занятие "Русский по пятницам"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пров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узее книги А.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17 февраля. Подготовка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предстоящ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емь уроков по правила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оводит занятия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музея.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самого диктанта, организуют работу над ошибками, где каждый сможет узнать свои пробелы в знаниях.

Ежегодная всемирная акция по проверке грамотности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пройдет в этом году 8 апреля.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принять в ней участие уже в шестой раз. В 2016 году в ежегод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акции в форме добровольного диктанта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участвовало около 100 сахалинцев.

Цель акции -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н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обудить интерес к повышению грамотности.

<고르니 워스두호>스키장 무료 가이드투어 초대

<고르니 워스두호> 종합스포츠관광센터는 겨울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사할린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스키단지 내에 무료 유람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방문객들에게는 스키 노선과 케이블카 노선, 기획 행사, 장비 대여 등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며 가이드투어는 15시에 시작한다.

그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스키장 아래 역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외곽에 위치한 <시네고르스크 미네랄 워터>휴양소까지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된다. 소요 시간은 약 50분으로 휴양소 도착 후에는 <고르니 워스두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휴식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다.

가이드투어와 버스 신청은 전화 8-(4242)-51-11-10 (추가 132).

그 외에, <고르니 워스두호> 스키장으로 향하거나, 유즈노사할린스크 호텔들에서 머무는 관광객들에게 버스이용은 무료라고 전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순환버스 1대가 대기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순환 버스 2대가 대기하여 운행된다. 버스 운행의 새 시간표는 <고르니 워스두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고르니 워스두호>스키장 홍보실은 전했다.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глашает на бесплатные экскурси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а о том, что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по четвергам и воскресеньям, в течение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можно совершить бесплат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 комплексу. Гостям расскажут о трассах и канатных дорогах,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кате снаряжения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Начало экскурсий в 15 часов.

Кроме того, по вторникам и пятницам от ниж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курсирует бесплатный автобус до санатория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распо-

ложенного в при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ремя в пути — около 50 минут. В санатории для клиентов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сформиров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релакс-пакеты.

Запись на экскурсии и на автобус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51-11-10 (добавочный 132).

Кроме того, гражданам напоминают о бесплатных автобусах для турис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гостин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правляющихся на склоны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четверг на маршруте находится один автобус, с пятницы по воскресенье — два. Новое расписание движения автобусов доступно на [сайте](#) комплекс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타타르 요리축제 개최

2월 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첫 타타르 전문 요리사 유누스 아흐메트자노브 90 주년 기념 타타르 민족요리 축제-콩쿠르가 열린다.

축제 참가자들에게 미리 과제가 주어지는데 과제로는 전통 혼례식 요리, 에츠포츠마크, 베레쉬, 구바지야, 괴식빅이, 페레마치, 코쉬 텔레, 페흐헤웨, 비쉬 카트, 명절 타타르 피로고 <스메탄니크>, 차크-차크 같은 타타르식 제빵 제과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특별히 축제 측면에서 타타르의 민족 전통에 따른 손님맞이, 민족적 색채와 장식의 식탁 차림은 독특한 명절 분위기를 둘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 고객들은 예술 프로그램, 타타르 민요와 전통춤도 즐길 수 있다고 하고 요리 레시피도 공유할 예정이다.

요리축제 참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는 2월 24일까지 Zakia62@mail.ru 로 해야 한다.

신청서 다운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축제는 사할린국립대학교 제4호 건물(콤폴니스찌 체스키 프로스펙트 33번지)에서 진행한다. 시간: 오전 11:00. 대상: 자유입장.

추가 정보: 8-914-763-79-66, 8-924-282-47-61로 문의를 바란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8면에 계속)

미술전시회

화조도 장르의 상징
동양 4개국 미술가들의 작품 한눈에 보고

지난 17일(토) 17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꽃과 새 그림(화조도)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데서의 위대함: <꽃-새>장르의 상징>이란 미술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30년간 수집되어 미술관에 소장된 동양국가들의 출품물 70점을 소개한다. 꽃과 새를 주제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중국 작품들은 기술, 모양, 물품별로 나뉘어 전시되었는데 동양 4개국의 작품 모두가 잘 어우러져 있었다. 전람회에는 족자, 그림, 수예, 도자기, 의상 등까지 볼 수



있었는데 공통점은 역시 꽃이나 새 그림이었다.

이번 전람회 큐레이터인 본 미술관 극동지방의 국가들 총 연구원인 하이(배) 옥자에 따르면 <후아나오(꽃과 새)>(: 화조도花鳥圖)장르는 당나라 시대(7-10세기)의 중국 미술에서 생겨, 일본과 한국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상징이 많이 담긴 민화는 그만큼 내용도 깊다.

이번 전시회는 화조도 장르에서 작업하는 현대 미술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미술박물관 초대 관장인 고로호와 라이사는 동양 컬렉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수대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작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여러 작품들은 예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엿보고 구했던 적이 많았고 직접 선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알고보니 개막식에 참가한 알레리 벨로노소브 사할린 문화재단 부이사장도 역시 90년대 초기에 만수대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바가 있었다.

하이 올라 총 연구원은 4계절을 상징하는 꽃·나무도 소개했다. 매화는 봄, 백합은 여름, 국화는 가을, 대나무는 겨울과 상징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한다.

"선인들은 화조 이미지를 빌어 음양의 조화, 사랑과 행복을 찬미했다. 나뭇가지에 앉은 한 쌍의 새와 활짝 핀 매화나 도화는 지상에서 본 이상형이자 낙원을 구현한 풍경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라는 한 미술 평론가의 말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옛 일본 은행건물에 자리잡은 미술박물관은 개설된 날부터 많은 작품을 수집하여 소장하게 되었다. 사실 공간이 부족해 많은 소장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3월 말까지 열리는 동양 4개국의 화조도를 즐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김종훈 의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기억하는 사람들'의 첫 걸음, 강제징용 노동자상 ‘서’과 평양’건립

김종훈 국회의원(무·울산동구)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에 대한 공식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김 의원은 “일제시기 조선 노동자들은 쿠릴열도, 사할린, 남양군도 등지로 끌려가 광산, 농장, 군수공장,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예처럼 학대 받으며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징용의 진상규명이 이뤄져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힘을 모아야나갈다. 국민들도 강제징용”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는 지난해 8월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본 단바망간광산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서울과 평양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1일 서울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는데 이어 2018년엔 평양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한다. 이는 남북 노동자가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다.

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는 일제시기 강제징용 문제를 널리 알려내고 일제식민지 사죄와 함께 배상 문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종합일보)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귀국 전에 황혼결혼을 하거나 남-남, 여-여 커플로 짝을 지어야 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의 불씨가 내재해 있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다투다 이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하물며 급조된 커플은 오죽할까. 이와 같은 우려는 금세 현실로 드러나, 2006년에 합의결혼을 하고 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후유증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과 공동으로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하기 전, 한국 정부가 독신자들에게만 영주귀국을 허락했을 때도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었다. 춘천 <사랑의집>과 고령 <대창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부양자가 없는 고령의 독신자들을 수용하겠다고 나서자,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이혼을 하고 홀로 영주귀국하는 사할린 한인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또 어떤 부부는 위장이혼을 하고서 같은 시설에 따로 들어오는 등,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영주귀국 대상이 독신일 때는 이혼 후 남성이 먼저 귀국을 했다가, 훗날 한일 공동의 시범사업으로 부부가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되자 다시 사할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함께 귀국을 신청한 예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남편은 이미 한국 국적이고 부인은 러시아 국적인 상태여서 재결합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만 보더라도, 영주귀국의 조건을 협소하게 정해놓고 “귀국을 원하면 알아서 이 조건에 꿰맞춰 들어오라”는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사할린 한인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하고 두 번 울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극적인 한국 정부, 주도권 일본에게 넘겨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사할린 문제 해결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자, 한국 정부는 영주귀국 희망자의 귀국 및 정착에 따른 비용과 사할린에 잔류하길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일정액의 보상금 지급을 기본 내용으로, 일본 측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은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1993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은 전원 다 데려올 생각이다. 인도적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힌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정작 행동을 하는 데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994년, 영주귀국자를 위한 주택과 요양시설을 짓되 그에 필요한 부지는 한국 정부가, 건설 비용과 정착지원금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을 때도 그랬다. 일본은 곧바로 예산 편성까지 마친 데 반해 한국은 부지 하나 선정하는 데도 엄청 시간을 끌었고, 결국 사할린 한인들은 2000년이 되어서야 안산 고향마을에 입주할 수 있었다.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고령의 한인들 처지를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부지 선정에 몇 년씩 끈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의 안일하고도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주귀국 사업의 재원 수급은 대부분 일본에, 그것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의존해 있다. 이는 향후 일본 정세와 정권의 태도 변화에 따라 영주귀국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본이 고수하고 있는 영주귀국 지원의 원칙은 철저하게 ‘1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사할린 한인 단체장들은 2013년 3월 일본 적십자사를 방문해 “일본은 사할린 한인들을 적시에 귀환시키지 않은 잘못이 크기에 현재 4세까지 내려온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책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때도 일본은 1세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했었다.

이처럼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한일 적십자사에 의한 영주귀국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하기는 커녕 아무런 힘과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보면, 저절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강제동원으로 이미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재외동포들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일이 우리 정부에게는 왜 그토록 어렵기만 한 것일까? 영주귀국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에게 또 다시 이별을 강요하는 것 말고는, 진정 고국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인가?

나는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할린 한인의 잔혹한 이산離散의 역사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Ван Седжон, прозванный потомками Великим, умер в мае 1450 г.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его усилия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страны,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не все было в Чосоне гладко. После смерти Седжона ваном становится его старший сын Мунджон, который правил всего два года – с 1450 по 1452 гг.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его правление было недолгим, он остался в памяти потомков, хоть почти все его известные дела были сделаны, когда еще он был наследным принцем. С 1442 г. он был регентом отца, заботилс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ах. Корейская история приписывает ему изобретение манометра. Он имел 11 жен и 8 детей, а трон оставил малолетнему сыну Танджону.

Танджону было всего 11 лет, когда он стал ваном. Однако,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малолетством вана, его дядя (второй сын Седжона) в конце 1453 г. соверш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и захватил фактическую власть в стране. В 1455 г. дядя заставил Танджона отречься от престола и сам стал новым ваном под именем Седжо. Танджона сослали в провинцию.

Однако часть сановников остались верными низвергнутому вану. Они организовали заговор и попытали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на престоле Танджона. Заговор был раскрыт и шесть руководителей были казнены. Они вошли в историю как *саяксин* (шесть погибших сановников) и остались в памяти потомков как символ гражданского мужества, пример для многих поколений конфуцианцев.

Заговор ухудшил положение Танджона. В конце 1457 г. Седжо отправил находившемуся в ссылке вану приказ о самоубийстве (или как было принято выражаться официально – пожаловал его смертью). Танджону было всего 16 лет.

Седжо правил страной до 1468 г. Не доверяя чиновникам-конфуцианцам, которая считали его узурпатором, Седжо попытался вернуть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буддизму. По ег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кратил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созданные Седжоном Великим Чипхёнджон (Павильон мудрых)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занимавшееся научными проектами, в недрах которого и был создан хангыль. Посчитав, что ученые Чипхёнджона вмешиваются в политику, Седжо приказал его закрыть.

Также при Седжо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широко издавалась будди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шла торговля разрешениями на принятие монашества.

После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ления Йеджона, сына Седжо, правившего в 1468–1469 гг., на престол вступает внук – Сонджон. Правление Сонджона было уже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м – он правил с 1469 по 1495 гг.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стал ваном в юном возрасте – в 12 лет, а умер в 36 лет, он прекратил заигрывания с буддизмом и способствовал окончательному утверждению конфуцианства.

Сонджон был решительным сторонником учения Чжу Си (китайский философ XII в., глав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и активно выдвигал на руководящие посты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их идеологов. Не случайно, что именн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онджона была окончательно сформирована юридическая база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 кодекс законов «Кёнгук тэджон».

Правление Сонджона знаменовало собой начало конфликта двух идей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группировок – новых,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их ученых-чиновников (сари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оличной верхушки – «заслуженных сановников» (хугупха), которые выдвинулись в первые десятилетия правления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Этот конфликт длился шесть десятилетий, хотя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ними были не слишком большими. Обе группировки были сторонниками конфуцианской моде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однако саримы были более идеологизированы, они хотели изменить кор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зив его к идеалу Чжу Си. Хугупха же стремились к сохранению статус-кво, при котором они неплохо себя чувствовали и не поддерживали проектов радикаль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Особое беспокойство вызывали у хугупха судьба их обширных земельных владений.



Рисунок 1. Ван Седжо (1455–1468)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 СО

Культура

Выставка «цветы-птицы» откры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17 февраля в 17.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из фонд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Великое в малом: символика жанра «цветы и птицы».

Выставка представляет коллекцию произведений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теров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дбором произведений занималась куратор выставки Ольга Хай,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раздела коллекции «Искусство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Классический жанр хуаняо («цветы-птицы»). Сложившийся в китайской живописи в период Тан (VII-X вв.), своего блестящего расцвета достиг в сунское время и оказал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этого жанра в Корее и Японии., - объяснила Ольга Ха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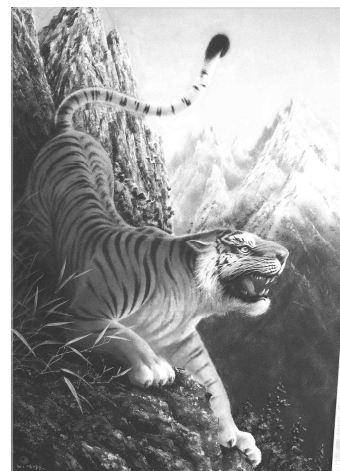
И потому на выставк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из КНР,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Японии. 70 предметов коллекции – это небольшая часть работ, хранящихся в фонд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ачало Восточной коллекции было положено в 1980 гг., когда сотрудники музея впервые отправились в КНДР в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мастерские Мансудэ.

Об этом напомнила собравшимся первый директор СОХМ Раиса Горохова. Именно с ее легкой руки в фонды музея попала японская ваза, украшавшая гостиницу облисполкома. И таких историй, по при-

знанию Гороховой, было немало.

Мир цветов с бесконечным многообразием форм и красок, рождающий возвышенные чувства от созерцания красоты, был и остается неисчерпаемым источ-



ником вдохновения поэтов, художников всех времен и народов.

Изображение цветов и птиц в картинах, вазах, веерах, фарфоре, металле, вышивке, ширмах, головных уборах и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е наполнено большим смыслом. Ведь искусство этого жанра состоит именно в умении передать в предмете духовное начало мира.

Цветы – яркие символы в мире живописи.

Мехва – цветы сливы – олицетворяют весну, стойкость, единение мужского и женского

начала. Орхидея – сама утонченность и сдержанность, символ лета, хризантема – эмблема осени и уединения, «отшельник, любящий поздний аромат».

В преддверии весны, пробуждения природы стоит сходить на такую выставку, и еще раз оценить уникальность Сахалина, где можно почувствовать дух сразу четыре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тран.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17 март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НАЧИНАЮТ ПОЛУЧАТЬ ПЕНСИЮ ДОСРОЧ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одающих заявки на досрочное получение пенсии, а также тех, кто желает отсрочить начало выпла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о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получателей выросло с 216 тыс. в 2010 году до 509 тыс.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о есть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енсию от 1 до 5 лет раньше наступл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и этом за каждый такой год сумма пенсии сокращается на 6%. Люди идут на это, несмотря на очевидные минусы.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телем ухудш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а также стремлением обеспечить средства для жизни. Между тем, растет численностью людей, желающих отсрочить выдачу пенсии. Их количество выросло с 1.075 в 2010 году до 15 тыс.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кие люди на момент наступл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имеют работу и хотят отодвинуть выплату пенсии, что в будущем увеличит сумму выплат.

(KBS World)

ГОТОВИМСЯ К ВСТРЕЧЕ КРУИЗНОГО ЛАЙНЕРА
КРУПНЕЙШЕГО ТУРОПЕРАТО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2 000 турис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УСЛОВИЕ -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т начального уровн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 2 месяца (март, апрель)

СТОИМОСТЬ ДЛЯ СЛУШАТЕЛЕЙ - бесплатно

По окончании выдается сертификат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САХГУ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ОСНОВЫ
ЭКСКУРСОВЕДЕНИЯ»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ам:

8 (4242) 770-222, 770-666, 755-356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скрытие тела Ким Чон Нама не выявило следов инъекций и сердечного приступа

Малазийские эксперты в ходе проведённого вскрытия тела Ким Чон Нама, бра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не обнаружили признаков сердечного приступа, следов инъекций и других видимых повреждений кож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о вторни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алайзии. Причина смерти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ётся неизвестной и вряд ли может быть определена до завершения лабораторных анализов тканей, взятых во время вскры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здрава опроверг сообщения о проведении повторного вскрыт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дтвердив, что о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им Чон Нама пока не поступал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рос на выдачу тела. Он опроверг также сообщения ряда СМИ о прибытии в Малайзию Ким Хан Соля, сына Ким Чон Нама.

Мун Чжэ Ин остаётся лидером сред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Бывший лид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Чжэ Ин седьм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ред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по заказу телеканала MBN, за него готовы проголосовать 32,5% респондентов. Это на 0,4% меньше, чем неделю назад.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Ан Хи Чжон – 20,4%. Его показатель, продолжающий рост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недель,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 20%.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зрыв между ними сокращается.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РК Хван Гё Ан – 14,8%, на 0,5% меньше, чем на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 Далее следуют бывший лидер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Ан Чхоль Су - 8,8%. Его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щается две недели подряд.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мэра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а – 8,1%, депутата от партии Парын Ю Сын Мина – 3,9%. Опрос был проведен в период с 13 по 17 февраля среди 2.521 человека.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плюс-минус 2%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ктриса Ким Мин Хи признана лучшей актрисой на Берлинале-2017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ктриса Ким Мин Хи, снявшаяся в картине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В одиночестве на пляже ночью", получила приз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на 67-ом Берли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Ким Мин Хи сыграла в фильме главную роль Ён Хи, которая влюблена в женатого режиссёра. Вернувшись из Германии в город Кан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Ён Хи встречается с друзьями и задаёт им вопросы о любви и жизни. Ким Мин Хи стала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ктрисой, получившей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на одном из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мировых кинофестивалей. Победителем 67-го Бер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стал фильм "О теле и душе" венгер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Ильдико Эньеди.

Сайт Asiana Airlines подвергся хакерской атаке

20 февраля в 4 часа утра сай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подвергся хакерской атаке.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на главной странице были размещены слова «No Justice No Peace». Нормальную работу системы удало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лишь к 9:30. Атаке подверглась компания, занимающаяся управлением сайта. Серверы Asiana Airlines не пострадали. Поэтому повреждения или утечек данных нет. Хакеры назвали себя 'Kuroi'SH and Prosox'. Они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е, написав, что «мир должен знать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которые Албания совершила в отношении сербского народа».

В Сеуле борются с курением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В Сеуле проводится программа ознакомл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с вредом курения. Под данным онлайн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6 год уровень курения среди учеников столичных школ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ей ступеней составил 5,8%. Это на 1,2%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мальчиков, обучающихся в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ах школ высшей ступени, составил 19,1%.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когда они начинают курить, - примерно 12 лет. В этой связи в мэрии указывают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пе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курения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Такие меры следует проводить уже относительно учеников школ средней ступени.

(RKI)

Какие грядут перемены?



Прошло почти полтора месяца с тех пор, как под занавес 2016 года вышел последний очерк знакомой многим читателям рубрик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В образовавшейся паузе были согласованы вопросы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должени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с учетом трехлетнего опыта и реалий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определены основные темы, по которым будут разрабатываться и публиковаться очерки в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ных газетах СНГ и в русскоязычных ресурсах интернета, а также и периодичность их выхода. Наместились перемены в географии издания газет, так как кроме «Коре ильбо» 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бавились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осква) и «Ильчи» (Бишкек).

Однако самое значительное изменение в рубрике касается того, что авторская монополия ушла в прошлое, и в новом году читатели будут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лушать мн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Очерки будут выходить с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в третью и четвертую недели и они сгруппированы в основные тематические блоки.

Первый блок тем касается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связи со сменой руководства в США,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озможной смены руководства в Компартии КНР,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Гын Хе, возможной смены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двидятся измен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им получится расклад сил в шести-угольнике США, Россия, Китай, Япония,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Кореи? Уйдет ли безвозвратно прошлое соотношение двух треугольников «правой» и «левой» сторон? И наконец, можно ли ожидать нового «потепления»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Сеулом?

Во втором блоке, обозначенном как «Современная миграция или репатриация в Южную Корею» речь пойдет о то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вратилась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из страны-доно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игра-

ции в страну-реципиента иммигран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Репатриаци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расте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чосончжок из Китая, корейцы из стран СНГ, беженцы-тхальбучж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она может оказать влияние на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Корейцев СНГ интересуют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б иммиграции,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Третий блок тем касается опыта интеграции репатриантов в современно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к модели объединения страны. Вс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числа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спытывают культурный шок из-за разницы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езн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енталитета и т.д. Этот опыт может стать моделью будущих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рее.

Три других блока охватывают одну тему – отражения вопросов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Во-первых, 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ах Южной Кореи; во-вторых, в современ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Южной Кореи (о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38-ой параллели,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ьях,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специ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Кэсоне, Гымгансанском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роекте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в-третьих, в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Южной Коре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Ежегод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за рубежом выходят сотни книги, тысячи статей, проводятся десятки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на которых звучат множество докладов по тем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О них большинство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ичего не знает. Планируется в популярном стиле рассказать об основ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идеях и предложениях ученых.

В течение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мониторинг отношений корейцев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 целью выяснить, что знают и думают читатели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КНДР, уровне жизни, положении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о возможност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о применимости «китайской модели» модер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о восприятии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ем корейцев сарам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и т.д.

И наконец, в планах рубрики публикация лучших эсс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на тему: «Мечты о Единой Корее», в которых авторы выразят свои мысли и эмоции, связанные с мечтой о единой Родине – Корее.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эссе проводится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секцией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совместно с Молодежным движением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Жюри будет оценивать как содержательную сторону, так и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ценность эссе. Самые лучшие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в газетах и на сайтах. Победители, занявшие первое,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и призы.

Герман Ки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секц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17-ого созыва.

Затраты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ом достигли нового рекор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умма расчётов, проведённых южнокорейцами через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а.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4,3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7,8%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Нынешняя отметка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о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1 годом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66%. Такой рост объясняется увелич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корейцев, выезжавших в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оездки за границу. Так,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рубеж выехали 22 млн 380 тыс. корейцев, что на 15,9% бол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блюд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к увелич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т при расчётах.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между тем, вызывает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состоя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ностранцы провели в РК расчеты через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на сумму 10 млрд 708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6,6%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степен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после вспышки вируса MERS, когда поток туристов резко сократился. Вместе с тем,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страну, выросло на 30,3%, составив 17 млн 240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чествовали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 канун важ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зрительном зале Чехов-центра собралис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расквартированного в регионе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пограничники, сотрудники ведомств силового блока, ветер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Командующий войсками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Сергей Суровикин поздравил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с наступающим Днем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ысокий боевой потенциал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гарантие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важнейшим фактором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добились воины, несущие служб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частности,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39-й отдельно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мото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ошли в тройку лучших по итогам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танковых экипажей в рамках игр «Арми-2016». Сергей Суровикин подчеркну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осит важный вклад в повышение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частей 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островного гарнизона, помогает в решении различных проблем, стоящих перед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и членами их семей.

К празднику - Дню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 в нашей стране особое отношение, - с такими словами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 23 февраля мы чествуем людей, которые оберегают мир и покой в нашей стране. Жизни земляков,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И которые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всегда придут на помощь.

Особ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лава области выразил ветеранам.

- Вы приложили немало усилий, чтобы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стали комфортным и безопасным местом для жизни, - сказал он. - Огромное вам спасибо.

По мн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бщая задача гражданских и военных - быть готовыми к новым рискам и вызовам.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 для этого важно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и эффе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и, командования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и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оно было налаже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о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был оборудован полигон «Успенковский». И теперь он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й по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учебно-мобилизационных сборов, а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 У наших подростков и молодежи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армейским бытом, получ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навыки и знания, пройти начальный курс молодого бойца, - отмети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движение «Юнармия», открылось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ымпел», островитяне охотно идут в други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нечно,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они свяжут свою дальнейшую судьбу с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будут достойно служить России, приносить пользу обществу.

По словам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ыполняя служебные задачи, чувствовали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государ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быт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комфор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сего того, что определяе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людей. С этой целью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иступили к масштаб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для вое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других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и ведомств. В 2016 году они уже получили 68 квартир. В 2017 году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190 квартир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для пограничников.

- И это лишь часть большой работы,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Мы многое делаем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обла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м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туризму, улучш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Это дало вполне конкре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Безусловно, впереди еще много задач, требующих решения. Но я уверен, что при вашей поддержке 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мы успешно воплотим в жизнь все задуманное. Сделаем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еще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м,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жизни местом.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убернатора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ое исполнение воинского долга,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в служ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укреплению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региона был поощрен ряд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 работу новый лососевый завод

Предприятие п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у кеты сегодня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ось в селе Придорожное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проектная мощность завода - до 30 миллионов мальков в год.

Он построен обществом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Каниф»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приятие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72 инкубационных бокса, питомник площадью 6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 четыре пруда, каждый на 5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инкубации уже находится 22 миллиона икринок.

- Искусственное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лососевых - очень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ым мы предметно занимаем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бъекта и без которого сегодня не обойтись. «Ловецкий» стал 46-м заводом, действующ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он построен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где подходы лососевых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минимальны.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естественных нерестилищ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рыбоводных мощностей позволят восстановить и приумножить промысловый потенциал некогда богатейшего промыслового района. В различных стадиях от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д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екты еще пяти подоб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Для справки: открываемый сегодня завод построен на месте бывших мелиоративных систем, а сама базовая река упирается в каскад водопадов. По сути, предприятие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утраченную экосистему. Только так мы можем вернуть было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е и рекреационное значение этим акваториям, - подчеркнул принимавший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завод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горь Быстров.

Мэр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ладимир Пак добавил, что «Ловецкий» - первый в районе частный рыбопроизводный завод. Его построили бизнесмены - невеличане.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анного завода существенно поможет нашим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м заводам. Ведь из-за нехватки сырья многие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закрыть цеха и сокра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Более того,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ОО «Каниф» начн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двух аналогичных заводов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ак.

Сейчас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трудится 15 человек. Среди них - главный рыбовод Виктор Погодин. Мужчина занимается разведением лососевых уже более двадцати лет.

- Наша задача - оживить реки запада Сахалина и наполнить их рыбой. Каждый день, приходя на работу, я ощущаю огромное чувств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едь от меня зависит сохранность и выживаемость сначала заложенных в инкубаторы икринок, затем личинок, а позже и мальков. Здесь нельзя зевать и работать, спуская рукава, - поделился Виктор Погодин.

Уже в конце мая этого года новый завод в сахалинские реки планирует выпустить не менее 21 миллиона молодых кет. Возврат первой рыбы ожидается в 2019 году.

Федеральные власти одобрили созд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еноводче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елекционно-гене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ервое учреждение будет занято разведением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ортов картофеля элитных репродукций, наиболее отвечающих услови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торое - улучшением поголовья свиней. Это решение стало одним из итогов прошедшего в Москве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2017-2025 годы.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ндрея Фурсенко, помощ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Аркадия Дворкович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 част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опросы об улучшении качества поголовь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животных и птиц, а также развитии семеноводства.

Разработанны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меет некотор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Например, из-за высок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доставл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 семена картофеля высоких репродукций становятся почти вдвое дороже. Поэтому планы област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создание семеноводче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Уже в 2017 году оно должно произвести 1100 тонн элитных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Столько же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было закупле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хозяйства при выходе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в 2025 году составит 2900 тонн элитных семян в год.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местных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качественном семенном материале.

Налади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изводство чистопородных хряков и маточного поголовья свиней, а также гибридных свинок поможет создан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бственного селекционно-гене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его продукция будет поставляться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области, регионы ДФО, а также в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Наши планы были одобрены, - сообщил принимавший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2017-2025 годы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эти проекты будут на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а также частных инвесторов.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поддержки педагогов будет внедрятьс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Вопрос о развитии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бсуждался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Москв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ьгой Васильевой.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все аспекты образования - дошкольного, начального,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высшего. Отмечено,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ены детскими садами малыши в возрасте от 3 до 7 лет. Теперь необходимо наращивать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в яслях для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ажную роль в дел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отводят вариативным формам дошколь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 семейным детским садам, группам присмотра.

- В некоторых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у нас возникает следующая проблема, - рас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 селе, например, насчитывается всего 25 малышей, которые не охвачены дошкольным воспитанием. Этого слишком мало, чтобы строить полноце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Но детей устроить нужно. Поэтому внедряем вариативные формы образования, например, детские сады на дому. Это откры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ботка для педагогов, которые вышли на пенсию, а детям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словам Ольги Васильево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документы,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и другие вариативные формы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же министр отметила, что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по поддержке педагогов необходимо внедрять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Речь идет, в частности, о доплатах молодым учителям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трех лет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им иметь средний по отрасли заработок.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педаг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осит работающему учителю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в 13 тысяч рублей, а пенсионеру - прибавку к пенсии. Эта практика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заверил Ольгу Васильеву сахалин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Активно вед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чителей жильем. Наприме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ами стали 47 педагогов.

- Считаю, что нужно выделять по 150 квартир,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У нас ежегодно приходят в школу примерно 150-170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они, конечно, должны быть обеспечены жильем. Мы его будем предоставлять на различных условиях. Например, в качестве арендного, которое будут оплачивать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Возможно, организуем льготную ипотеку для бюджетников - с минимальной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и длительным сроком погаше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ришли к общему мнению: специально, по которым ведется обучение, должны точно отвечать потребностям существующего рынка труда.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вать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овременными тренажерами, внедрять в практику технологии, с которыми выпускник столкнется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Сейчас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зрабатывает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цель которой - обеспечить внедрение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подготовк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для экономики.

Ольга Васильева поддержал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которые вводят в местных вузах нов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с учетом местных нужд. Речь идет о подготовке учителей математики, физики, а также инженеров - строителей.

- Требуется также провест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чтобы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финансовое состоян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вести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к средним показателям по Росси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итоги разговора с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и. - Также стоит задача - добиться, чтобы СахГУ был включен в список 20 ведущ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영주귀국자들의 소식

사할린 영주귀국자회, 깨끗한 아산만들기 ‘팔걸어’

아산시 신창면에 영주귀국해 정착한 사할린동포회(회장 백기부) 회원들이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대청소에 팔을 걷었다.

회원 60명은 지난 17일 소화마을 아파트 주변 대청소에 참여해 주요 도로변, 공원, 아파트 단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봉사를 마친 박영자 부회장은 “이제 어엿한 신창면민의 일원으로 내가 사는 주변은 우리가 먼저 청결하게 가꾸며 앞장서겠다”며 매월 1회 이상 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식 신창면장은 “쌀쌀한 가운데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동참해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산시민과 영주귀국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할린영주귀국자 정정란 부녀회장은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에도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충남일보)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 9월까지 서귀포로 이전

당초 제주시로 이전 승인 · · · 서귀포시 제2청사로 임차 이전 결정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월 1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철기 재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 이사장과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교류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오는 9월까지 제주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두 재단은 임차시설인 서귀포시 제2청사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제주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포재단과 교류재단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

전이 승인됐으나 그동안 혁신도시 내 청사 확보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오다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서귀포시 제2청사로 임차 이전을 결정했다.

현재 두 재단의 임차시설인 서귀포시 제2청사의 리모델링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7월까지 제2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8월까지 재단 자체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8월부터 일정에 맞춰 직원 개별 거주 공간 마련과 자녀 전입학, 배우자 이직 등이 진행된다.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인원은 교류재단의 경우 80여명에 이르며, 동포재단은 48명으로 두 재단 이전 인원

만 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등을 포함한 이주인력은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포재단의 경우 제주 이전 준비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제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로 조직개편을 시행해 제주 이전을 대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두 재단의 제주 이전은 중전 계획대로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두 재단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재단,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와 MOU 체결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각 기관 간 상호 협력 추진

-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및 재외동포사회 역량을 통한 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17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희범) 및 강원도(강원도지사 최문순)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홍보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기관 분야별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재단 사업과의 연계하여 올림픽 홍보 활동을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향후 재외동포사회 역량을 활용하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번 업

무협약을 계기로 각급 재외동포 관련 행사의 강원도 개최 및 재외동포의 동계올림픽 참관 관련 가능한 협력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에 직접 힘을 보탬 수 있게 되어 뜻깊은 기회"라며, "고국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720만 재외동포가 힘을 모아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넷)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8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야

(전화의 계속)

대화

올가: 보바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보바: 선생님께서 내주신 감상문 숙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중이야. 그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야. 나는 감상문을 어떻게 쓰려고 하니?

올가: 나는 이번 여름 방학 때 부모님과 제주도에서 왔거든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쓸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가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섬이더라!

지마: 내 생각에는 여름 방학 동안 여행이나 유적지를 방문했다면 기행감상문을 쓸 수 있고, 집에 있었다면 영화를 보고 영화감상문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쓸 수 있지. 나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유적지를 견학했어. 가보니까 생각보다 볼 것이 많이 있었어. 그거 다 쓰면 감상문 서너 장은 나올 거 같은데.

이라: 맞아. 나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여행은 안 했지만 재미있는 영화를 몇 편 보았거든. 이런 영화에 대해 쓸까 해.

보바: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생각이 났어. 이번 여름에 집에서 재미있는 책을 몇 권 읽었거든. 그 책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독서감상문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올가: 그거야 좋지. 감상문 구상은 집에서 고민하고 지금은 다 같이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 나온 단어

심각하다-глубокий, серьёзный; 감상문-впечатления (изложенные письменно); 독서-чтение; 유적지-памятники старины, руины; 견학-экскурсия, осмотр; 구상 - замысел.

문법

Лингвистика. Морфология.

Выражение отриц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трицание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отрицательных наречий **안** и **못** или слов **아니하다**, **못하다**. Если в образовании отрицательной формы участвуют наречия **안** и **못**, то та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называются **짧은 부정문**. Если 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слова **아니하다** и **못하다** - **김 부정문**. В отриц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повелительного или пригласительного наклонений вместо слов **아니하다** и **못하다**используется слово **말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 만나지 못했다.

→ Я не мог его встретить.

나는 그를 안 만났다. / 만나지 않았다.

→ Я не встретил его.

그를 만나지 마라!

→ Не встречайся с ним!

그를 만나지 말자.

→ Давай не будем с ним встречаться.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으)ㄹ **터**이 없다 "нет причин для ..."

Примеры:

그가 이런 말을 할 **터**이 없다.

→ У него нет оснований для таких слов.

의심할 **터**이 없다.

→ Нет причин для сомнений

협정 체결을 더 이상 연기할 **터**이 없다.

→ Нет причин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ттягивания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2) -(으)ㄹ **지언정** **пусть ..., по...** "даже если..., но..."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изнание или допущ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факта с последующим акцентом на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ный ему другой факт. Употребляется с глаголами, именам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и предикативными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и.

Примеры:

아무리 바빠**지언정** 자기가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Даже если ты занят, все равно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о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ях.

그 사람은 **지언정**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 Да, у него нет способностей, но он неплохой человек.

그가 잘못했**지언정** 실망하지 않는다.

→ Пусть он поступил неправильно, но то не повод отчаиваться.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татарской кухни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татар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посвященный 90-летию первого татарск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шеф-повара Юнуса Ахметзанова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5 февраля.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домашние задания —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заранее традиционные свадебные блюда, мучные и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татарской кухни, такие как эчпочмак, бәләш, губадия, кыстыбый, перемячи, кош теле, пехлеве, бишкат, праздничный татарский пирог "Сметанник", чак-чак.

Особую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подчеркнут уникальные способы сервировки стол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атрибут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ациональному колориту и традициям татарског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творческими номерами, татарскими народными песнями и танцами. Со всеми желающими поделится рецептами блюд.

Для участия в кулинарном фестивале необходимо до 24 феврал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Zakia62@mail.ru. Скачать анкету-заявку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в учебном корпусе №4 СахГ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3). Начало в 11: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елефонам: 8-914-763-79-66, 8-924-282-47-61,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 블린의 가장 비싼 지역으로 10대 순위에 올라

Agro2b.ru 포털 편집국이 마슬레니짜를 앞두고 블린을 요리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비용에 대한 조사를 했다.

평가 작성자들은 블린 3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식품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블린 레시피에 따라 지방 3,2%의 우유 1리터, 고급 밀가루 400그램, 달걀 2개, <졸로타야 세메츠키>해바라기유 40ml와 설탕 (26그램) 2큰술, 그리고 소금(값은 고려하지 않음) 약간이 필요하다. 러시아통계청이 지표에 따라 모든 식품 가격을 끌어냈다.

순위에 따르면 가장 비싼 블린은 152,18루블리로 네네츠자치구. 2위로 마가단주는 148,74루블

리, 3위로는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는 132,66루블리, 4위는 캄차트카주로 127,68루블리, 프리모리예는 121,65루블리다. 사할린주는 8위로 도서 지역 주민들의 블린 30개를 조리하는 데는 103,95루블리가 드는 것으로 나왔다.

극동지역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아무르주는 88,34루블리이고 이어 유테인자치주는 102,35루블리, 그 다음은 하바롭스크 지역은 103,14루블리이다.

러시아연방 5개 지역 중 가장 저렴하게 블린을 장만 하는 곳은 타타르스탄 공화국으로 68,3루블리, 라잔주는 69,08루블리, 오텐부르크주는 69,99루블리, 모르도비아 공화국은 70,01루블리, 알타이 지역은 70,18루블리로 조사되었다.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десятку регионов с самыми дорогими блинами

Редакция портала Agro2b.ru в преддверии Масленицы провела исследование о стоимости продуктов для блинов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нашей страны

Составители рейтинга сравнили стоимость продукт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30 блинов. Согласно рецепту для их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отребуется 1 литр молока жирности 3,2%, 400 г пшеничной муки высшего сорта, два яйца, 40 мл подсолнечного масла "Золотая семечка" и две столовые ложки (26 г) сахара, а также соль, но ее стоимость не учитывалась. Все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были приведены по данным Росстата.

Согласно рейтингу, дороже всего приготовление блинов обойдется жителям Ненец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 в 152,18 рубля.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стоимости находится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 148,74 рубля, на третьем —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132,66 рубля. Далее следуют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 127,68 рубля 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121,65 рубл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восьмое место. Приготовление 30 блинов обойдется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103,95 рубля.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самым недорогим набором продуктов отличилась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 88,34 рубля. За ней идет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102,35 рубля, затем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 103,14 рубля.

В пятерке регионов РФ, где можно приготовить самые дешевые блины оказались: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 68,23 рубля, Рязанская область – 69,08 рубля, Оренбургская область – 69,99 рубля, республика Мордовия – 70,01 рубля, Алтайский край – 70,18 рубля.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зупел) 배 위도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